이주영 전도사

<이스라엘의 진짜 왕> - 신 17:14-20

1. 왕의 전제 조건
2. 순종

한 줄 요약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강조합니다. 즉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을 정령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 다시 말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실제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왕을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 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요구는 사사 기드온 때(삿 8:22-23)와 선지자 사무엘(삼상 8:4-22)입니다. 실제로 왕이 세워진 것은 사무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왕을 세울 수는 있지만, 대신 조건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하려고 애쓰거나, 정략결혼 하여 아내를 많이 두거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인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만, 불순종할 때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주영 전도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 신 25:17-19

1. 아말렉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2. 아말렉을 지워 버려라

한 줄 요약 :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멜렉 족속이 한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잊지 말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이는 앞으로 두루두루 지난 일을 회상하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았던 고대 유목민족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 지역의 사막 일대인 네게브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이들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무자비하게 선제공격한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후손 대대로 그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적 중,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콕 집어서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군대 아닙니까? 즉 아말렉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들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쉼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현재의 삶은 잔인하고 피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로 역시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과 저주> - 신 30:1-10

1. 하나님의 언약

2. 하나님께 순종

한 줄 요약 :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로 시대 상황까지 내다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그들이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회심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회심의 열매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말씀에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포로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포로 생활은 타국으로 끌려가서 겪게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자유는 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회심한 이스라엘이 세상 어느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국으로부터 직접 건져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서, 많은 수의 사람이 적들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와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함부로 이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HOW 주석
2. 엑스포지멘터리
3. 라이프성경사전
4. 매일성경전집
5. 신명기 Ⅱ(김영욱 교수)
6. 신명기 Ⅲ(김영욱 교수)